

등급판정결과로 살펴본 육우사육 현황

축산물품질평가원 대구경북지원장 백장수

육우는 일반적으로 홀스타인의 수소나 미정산 암소를 비육하여 출하하는 고기소다. 홀스타인 자체가 우유생산을 목적으로 개량되어 옴에 따라 다른 육용종 소에 비해 육질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사양관리 방법에 따라 등급판정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난해 등급판정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육우사육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2011년 등급판정 현황

2011년 육우 등급판정 두수는 94,328두로 전년대비 3.8%증가하였으며 6,048호의 농가에서 평균 15.6두를 출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산 쇠고기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1.1%를 차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한우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쇠고기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1〉 소 등급판정두수

구분	한우	육우	젖소	계
2010년	602,016	90,837	57,820	750,673
2011년	718,256	94,328	37,478	850,062

육우의 성별 구성비는 거세우가 77.3%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소는 7.0%, 암소는 15.7%로 나타났다.

〈표2〉 육우의 성별 등급판정두수

구분	거세	수소	암소	계
2010년	64,748	6,840	19,249	90,837
2011년	72,901	6,628	14,799	94,328

육우 수소에 대한 거세율은 2000년대 중반이후 한우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을 〈표3〉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육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전업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육우도 고품질육 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세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표3〉 연도별 거세율 추이

구분	00년	04년	09년	10년	11년
한우	9.5	35.1	71.1	88.2	88.7
육우	5.0	81.9	87.6	90.4	91.7

육우의 육질등급은 2등급과 3등급을 중심으로 출현되고 있다. 성별로는 거세우의 육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세를 하지 않은 수소는 거의 대부분이 3등급을 받았다.

〈표4〉 육우의 육질등급별 출현율

구분	1**	1*	1	2	3
육우 거세	0.4	2.8	10.4	40.9	45.2
육우 수소	0.0	0.1	0.1	3.0	94.5
육우 암소	0.5	2.5	8.5	32.5	52.2
전 체	0.4	2.6	9.4	36.9	49.8

육우의 육량등급은 B등급이 75.8%를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수소의 육량등급이 가장 좋고, 암소, 거세 순이다. 일반적으로 육량등급은 육질등급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육질이 좋은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육량등급의 저하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지만 육질과 육량 모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사육하는 사양관리기술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

〈표5〉 육우의 육량등급별 출현율

구분	A	B	C
거세	1.3	76.5	21.9
수소	23.3	71.4	2.9
암소	4.3	74.1	17.8
전체	3.3	75.8	19.9

2. 육우의 도체성적 변화

육우 거세우의 도체중은 지난 10년 동안 81.4kg이 증가하였다. 도체중의 증가와 함께 품질의 중요 지표인 등지방두께, 등심면적 뿐 아니라 근내지방도도 두드러지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내지방도의 개선은 육우도 거세와 함께 적절한 사양관리를 할 경우 어느 정도의 고품질육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6〉 연도별 육우 거세의 도체성적

(단위 : kg, mm, cm², No)

구분	도체중	등지방	등심면적	근내지방
2001년	337.6	4.0	72.0	1.3
2006년	388.2	5.9	72.1	2.1
2011년	419.0	6.7	76.1	2.2

육우의 성별 도체성적을 살펴보면 거세우의 도체중이 419kg으로 가장 무겁고 다음이 수소, 암소 순이다. 등지방은 암소가 7.3mm로 가장 두껍게 나타났으며 등심면적은 수소가 82.0cm²로 가장 넓다. 육질등급의 가장 중요한 평가요인인 근내지방도는 거세가 2.2, 암소가 2.1, 수소가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7〉 2011년 육우의 성별 도체성적

(단위 : kg, mm, cm²,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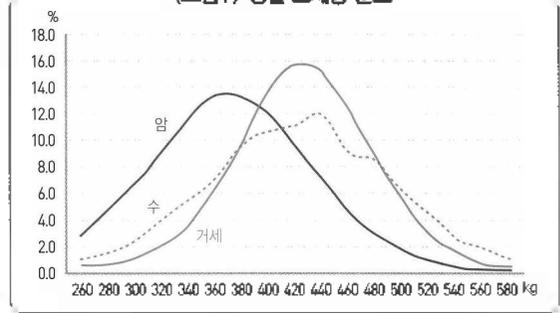
구분	도체중	등지방	등심면적	근내지방
거세	419.0	6.7	76.1	2.2
수소	404.7	3.3	82.0	1.0
암소	374.4	7.3	77.3	2.1

3. 육우의 도체중대별 도체성적

가축을 사육할 때 비육생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비육과 관련된 생리작용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러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등급판정과 관련된 평가항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고 있다면 출하시기 판단이나 등급판정결과를 피드백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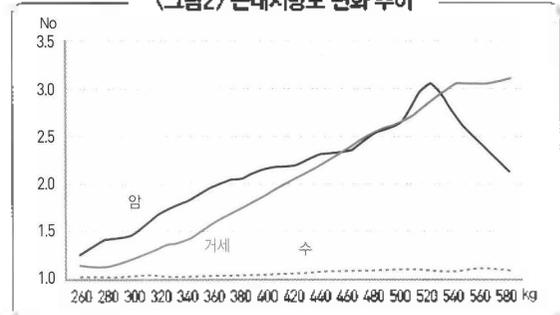
지난해 출하한 육우의 도체중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세와 수소는 400~450kg이 가장 많고 암소는 350~400kg에서 가장 많이 출하되었다. 평균 사육기간은 수소는 22.8개월, 거세우는 24.3개월이었다.

〈그림1〉 성별 도체중 분포



근내지방도의 경우 수소는 도체중의 증가에도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거세와 암소는 도체중 520kg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증가 속도가 완만해지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높은 근내지방도를 위해서는 장기비육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큰 도체중과 긴 사육기간은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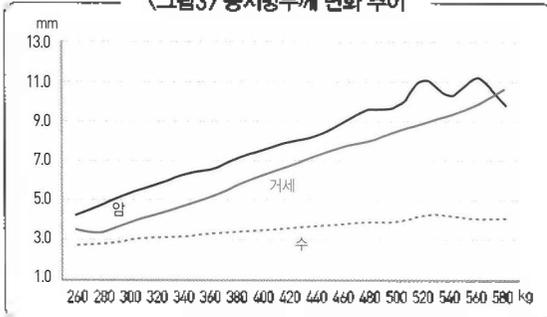
〈그림2〉 근내지방도 변화 추이



육량등급은 도체중,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품종 등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이 중 등심단면적은 넓을수록, 도체중과 등지방두께는 그 수치가 낮을수록 육량등급이 좋게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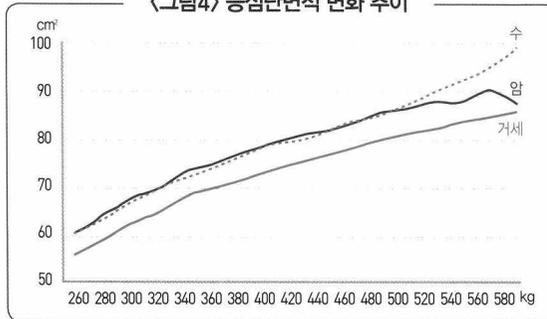
〈그림3〉은 도체중의 증가에 따른 등지방두께의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수소는 등지방두께의 변화가 크지 않은 반면 암소와 거세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수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암소와 거세는 장기비육 시 육량등급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3〉 등지방두께 변화 추이



등심단면적은 도체중과 비례하여 넓어진다. 수소와 암소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거세는 동일체중대에서 수소나 암소에 비해 약 5cm² 정도 작다.

〈그림4〉 등심단면적 변화 추이



4. 육우의 경락가격

〈표8〉은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과 공판장에 상장된 소의 경락가격이다. 육우의 평균가격은 한우에 비해 57.2% 수준을 나타내며, 육질등급이 높을수록 한우와의 경락가격 차이는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한우의 경우 고급육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나타나지만 육우는 등급이 좋아도 그 선호도가 한우에 비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육우에 대한 소비자의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표8〉 품종별 경락가격 비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전체
한우(A)	13,265	10,497	7,883	12,782
육우(B)	8,997	7,685	6,557	7,317
B/A	67.8	73.2	83.2	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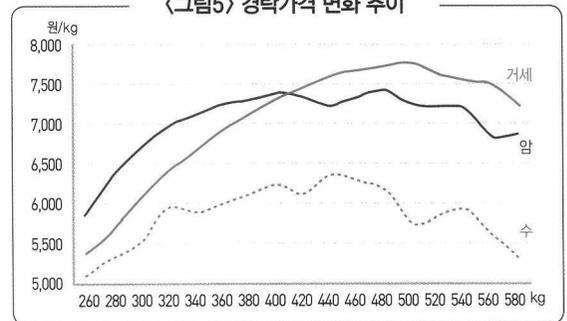
〈표9〉는 육우의 성별 경락가격을 비교한 것이다. 평균가격은 당연히 상위등급이 많은 거세가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같은 등급이라도 거세 유무에 따라 큰 가격차가 있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9〉 육우의 성별 경락가격 비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전체
거세	9,062	7,720	6,611	7,401
수소	-	6,797	5,944	5,963
암소	8,572	7,465	6,541	7,141

〈그림5〉는 도체중의 증가에 따라 경락가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성별에 따라 경락가격이 가장 높은 도체중 범위가 다르게 나타난다. 거세의 경우 500kg 내외에서 경락가격이 가장 높지만 이 보다 높은 체중대에서는 상위등급 출현율이 높게 나오더라도 경락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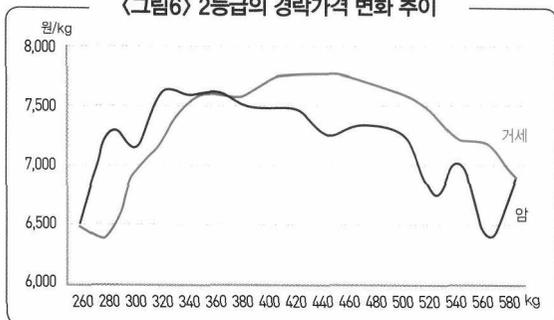
〈그림5〉 경락가격 변화 추이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도체중이 높을수록 육량등급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과 지육의 크기가 시장이 선호하는 범위를 벗어난 점이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도체중에 따라 시장의 선호도는 〈그림6〉에서와 같이 동일 등급일 때 도체중에 따른 경락가격 추이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암소는 300~400kg대에서, 거세는 400~450kg대에서의 가격이 가장 높다. 가격이 높다는 것은 유통업계에서 가장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6〉 2등급의 경락가격 변화 추이



5. 육우사육 방향

지금까지 등급판정 결과를 중심으로 육우의 등급별 출현율, 도체성적, 경락가격 추이 등을 살펴보았다.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시 등급판정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고품질육 생산이 소득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육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고품질육 생산보다 전체적인 소 값의 등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듯하다. 물론 거시적인 관점에서 소 값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육우의 고품질육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기울인다면, 그리고 육우에 대한 선입관을 버린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표10〉은 2011년 도매시장에서의 경락가격 상위 10%에 해당하는 육우 거세우의 성적을 전체평균과 비교한 것이다. 똑 같은 육우를 사육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상위 10%의 육우는 두당 100만원 이상 더 높은 수입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0〉 육우 거세의 도체성적 비교

(단위 : 원/kg, kg, cm², No)

구분	경락가격	도체중	등심면적	근내지방
상위10%	9,635	439	79.6	4.6
전체평균	7,566	419	76.1	2.2

경북 경주시 현곡면에서 육우 거세우를 사육하고 있는 한 농가는 지난해 1등급이상 출현율이 무려 55.2%로 나타났다. 일반 농가에 비해 4배나 높은 성적이다. 육우가 갖고 있는 선입관을 훌쩍 뛰어넘는 결과이면서 동시에 사양 관리 방법에 따라 등급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중요한 사례다.

2001년 140만두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한·육우 사육두수는 10년만인 지난 2011년 두 배가 넘는 295만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소비수준을 넘는 과잉출하로 이어져 2011년도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1년 전과 비교 시 한우는 20%, 육우는 25%나 떨어졌다. 더 중요한 것은 가격하락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육우 사육두수의 증가는 급기야 한우 암소도축 시장령금을 지급하는 정책까지 시행되기에 이를 정도로 금년도와 내년도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이럴 때 일수록 육우의 등급판정결과가 최소한 2등급 이상 이 나올 수 있도록 고급육 생산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등급판정결과가 우수한 육우농가에 대한 벤치마킹도 중요한 방법이다.